

## 01

**잠시 멈춤, 그리고 더 큰 도약**

- 2025년 세무직 공무원 화합 워크숍, 양구에서의 1박 2일 -

## # 프롤로그: 숫자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다

세무 공무원의 책상은 언제나 ‘긴장’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지는 과세 자료를 정비하며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원인들의 날 선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감정 노동은 직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넬 수 있다.” 강남구는 이 명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2025년 4월, 우리는 빌딩 숲을 벗어나 청정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토의 정중앙, 강원도 양구로 향했습니다.

## # 제1막: 숲에서 찾은 침묵의 위로

4월 10일, 워크숍의 첫 일정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안쪽에 숨겨진 비경, 두타연 트레킹이었습니다. 6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철조망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와 맑은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흠길을 걸었습니다. ‘지뢰’ 표지판이 주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옥죄던 업무의 긴장을 내려놓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허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방문한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림 속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구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되새기는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파로호 위에 한반도 모양으로 조성된 한반도섬을 거닐며, 시원한 강바람에 묶은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탁 트인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